



제주합창단 3년 만에 100회 정기연주회

김정연 지휘자 취임 공연
이달 11일 제주아트센터
합창단의 어제·오늘·내일
피날레 무대 '고맙소' 선곡



김정연 신임 지휘자와 호흡을 맞춰 3년 만에 정기연주회를 펼치는 제주합창단.

마침내 100이란 숫자를 달게 됐다. 3월 11일 오후 7시30분 제주아트센터 대극장에서 100번째 정기연주회를 여는 제주도립 제주합창단이다. 1985년 창단한 제주합창단(전 제주시립합창단)은 1999년 제주 소재 창작뮤지컬 '자정비'를 무대에 올렸고 2002년과 2003년에는 제주시립교향악단(지금의 제주도립 제주교향악단)과 함께 제주를 담은 창작오페라 '백록담'을 공연하며 또 한 번 역량을 펼쳤다. 제주를 대표하는 전문합창단으로 활동해왔지만 최근 지휘자

공석이 길어지면서 정기연주회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2018년 2월 8일 99회 정기연주회 이래 지금까지 100회를 잊지 못했다. 3년여 만에 치러지는 이번 정기연주회는 지난해 12월 10대 제주합창단 지휘자로 선발된 김정연 지휘자의 취임 무대를 겸한다. 제주시는 새 지휘자 선임 소식을 알리면서 "신임 지휘자의 위촉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

첫발을 떤 자리다. 30여 년 합창 지휘 경력을 지닌 김정연 지휘자는 이날 제주합창단원들과 호흡을 맞춰 합창단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그리는 곡들로 100회 정기연주회를 한 편의 이야기처럼 꾸민다. 브람스의 '집사의 노래'로 막을 연 뒤 제1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이었던 나운영의 '가려나'와 '달밤' 등 한국 가곡을 들려준다. 크로스오버 경연 프로그램에서 귀익은 '바람이 되어',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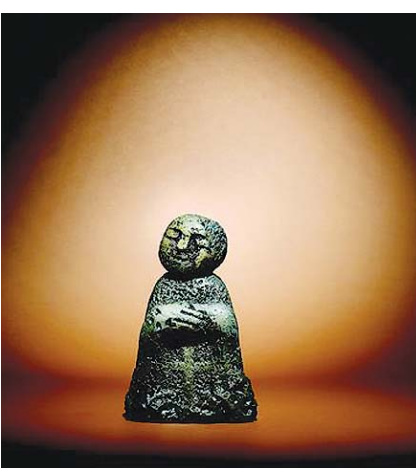
중'도 합창 버전으로 준비했다. 마지막 순서엔 허걸재 편곡의 '고맙소'란 곡을 골라 이즈음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며 희망을 노래한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객석은 250석만 개방한다. 사전 예약은 이달 3일 오전 11시부터 제주예술단 홈페이지에서 이뤄진다. 공연 장면은 추후 제주시청, 제주합창단 유튜브를 통해 중계될 예정이다. 문의: 728-2745. **진선희기자**

우리 곁에 있는 그분의 온기를 빛다

허민자 도예전 심헌갤러리
신앙의 표현 '영원을 담다'

가톨릭 신자인 허 도예가는 신앙인들이 "주님의 수난을 되새기며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부활을 기다리는 때"에 일상에서 만나는 온기를 표현한 작품 30점을 선보인다. '오병이여', '십자가의 영광', '기도-자비를 베푸소서', '구원의 십자가'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 메시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의 조형미술로 빛어낸 작품들

만날 수 있다. 시각적인 형태나 색채로 드러난 신앙의 모습을 통해 이 시절 회개와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허 도예가는 "예술로 사회와 소통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대 명예교수인 허민자 도예가는 지금까지 18회에 이르는 개인전을 이어왔다. 갤러리는 제주시 아란 14길 3번지에 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허민자의 '기도-자비를 베푸소서'.

문화가 쫓겨

김창열미술관 입주 선발

제주시 환경면 저지문화예술인마을에 있는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이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선정을 마치고 3월부터 본격 운영에 나선다. 김창열미술관 창작스튜디오는 지난 1월 처음 입주 공모가 이뤄졌고 1명(팀은 2명) 모집에 전국에서 16명이 지원서를 접수했다. 심사 결과 제주 출신 강주현 작가가 입주작가로 선발됐다. 강 작가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미술관 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해 창작 활동은 물론 교육 프로그램, 오픈 스튜디오 등을 통해 관람객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문화공간 전문인력 양성

제주도가 '2021년 공공문화예술공간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선발 인원은 총 14명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공립 박물관·미술관 8개소에 배치돼 기획전시, 행사와 프로그램 운영, 소장품 관리와 자료 조사, 홍보 업무 등을 맡는다. 모집은 3월 9일까지로 만 60세 미만의 준학예사 소지자 또는 국내의 대학 관련 학과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710-3418.

생활문화예술 지원 사업

제주문화예술재단이 2021년 예술동호회와 생활문화예술 참여·향유 활동지원 사업을 공모하고 있다. 공모 유형은 예술동호회 활동 지원, 청소년 문화예술동호회 활동 지원, 찾아가는 생활문화 활동 지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전문강사 지원, 생활문화 커뮤니티 지원이다. 유형을 세분화했고 총 지원액을 늘렸다. 또한 별도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 기간은 이달 16일까지로 심의 결과는 3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800-9161-2.

환경사진협회 제주 회원전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이 '2021년 박물관 속 갤러리' 두 번째 초청 전시로 이달 2일부터 28일까지 '제주 풍광, 삶을 위로하다' 사진전을 연다. 이 전시는 (사)한국환경사진협회 제주본부 주관하는 제13회 회원전으로 '초가의 겨울' (신준철), '송악산의 길' (양연섭), '겨울 한라산' (정법권), '제주의 농촌' (오상운), '해녀의 삶' (고병희) 등 30여 점이 나왔다. 한국환경사진협회 제주본부는 2012년 창립해 제주의 풍광과 자연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매년 자연환경 사진전을 열고 있다.

고재만의

제주어기림환관

<243>

구성: (사)제주어보전회
<재민그림글자 응용>



오맹이 골맨. "누님, 송애기 출이영 물이영 주꾸 단들이 잘 흥영 정지레 가쿠다. 부름씨 잘 흥민 옛날 이악 도시 흥여 주꾸광?"
준네 골맨. "오맹아, 옛날 이악은 하르바지신디 흥여 준생 흥겨. 흥희디 흥금웃이 무신 옛날이악이요? 흥저 송애기 단들이나 흥라."
오맹이 골맨. "예, 아고게 송애기 물도 잘 먹연신게. 흥도 더 맛양 와사커."
준네 골맨. "하르바지, 오맹이가 옛날 이악 흥여도런 흥없수다."
하르바지 골맨. "기어, 와리지말양 지들럼시라. 오맹이가 송애기 먹을 흥모맘시메 가이 오민 이악 흥여주마. 오맹이 흥차 일 흥쟁 흥민 남이 버치게게."
*** 제주어 풀이**
*출: <이름>마소가 먹는 품의 총칭. 품.
*단들이다: <움직>어떤 일에 대해 어긋나지 않도록 단단히 잘 타일러 두다.
*정지레 가쿠다: 부역으로 갈게요.
*부름씨(부름씨,부름씨,신부름,신바람,신바람,신부름): <이름>신부름. 남의 부름을 받아서 하는 일.
*흥여 준생 흥겨: 해 달라고 할게.
*흥금웃이(흥금어시,흥금에웃이): <어찌>난데없이, 돌연히, 우연히.
*맛양 와사커: 맛고 와야겠네. *와리지말양: 서둘리지말고
*지들럼시라: 기다리고 있어라. *버치게게: 힘들겠네.

* 제주어 풀이

고재만 화백

제주비엔날레 추진 여부 설문 조사

도립미술관 이달 2-8일
도민 등 찬반 의견 수렴

제2회 제주비엔날레를 취소하겠다는 밝혔던 제주도립미술관이 이번엔 '제주비엔날레 진단 설문조사'에 나선다. 도립미술관은 2일 "제주비엔날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제주도민, 도내의 문화예술 관계자,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주비엔날레 진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며 "이번 설문조사에서 제주비엔날레 인지도, 제주비엔날레 재추진에 대한 찬반 여부, 도립미술관 전시방향 등을 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달 2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조사는 대상별 대면 설문, 온라인 방식으로 각각 진행된다. 조사 대상 인원은 최소 800명으로 설문조사 결과는 제주비엔날레 재추진 여부와 미술관 운영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비엔날레는 도립미술관 주최로 2017년 첫 행사를 치렀다. 2회 행사는 당초 2019년 열릴 예정이었지만 도립미술관에서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며 2020년으로 연기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2021년으로 또다시 늦춰졌다. 그러다 지난 1월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국제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취소 결정을 내렸다. **진선희기자**

축
CONGRATULATIONS
취 득
제주대학교 관광학박사

성 덕 근

제주대학교 관광학박사 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15기 제주도공인중개사회
회장 강 동 현 외 회원일동

축
CONGRATULATIONS
취 득
제주대학교 관광학박사

성 덕 근

제주대학교 관광학박사 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창녕성씨 예래새파 일동

축
CONGRATULATIONS
취 득
제주대학교 관광학박사

성 덕 근

제주대학교 관광학박사 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LBA제주동문회
회원 일동

축
CONGRATULATIONS
진 금
육군 준장

현 대 중

육군 준장 진금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남원초등학교 53회 동창회
회원 일동